



사육부터 유통까지 최신설비로 제2의 도축
(주)모란식품* 2008년 12월 1일 신사육 준공식 개최



▶ 현 (대한국우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주)모란식품 김만섭 대표

1991년 모란유통으로 시작해 2001년 도축장 신축과 모란식품영농조합 설립, 2003년 HACCP 기준에 맞춘 오리도축장 신축, 2004년 농식품부 지정 HACCP 인증 취득, 2006년 기능성 오

리육 「셀덕」출시 그리고 2008년 12월 1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주)모란식품이 드디어 부화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폐수처리 시설까지 논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신설비의 오리계열화사업 단지 조성의 꿈을 이루었다.

(주) 모란식품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부문 모두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HACCP인증을 농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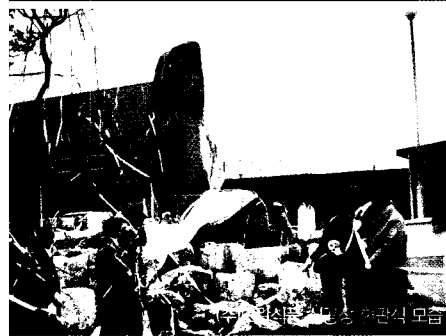
부에서 지정받아 위생적인 오리육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는 기능성 오리육 브랜드 「셀덕」으로 셀덕 오리소시지, 날개구이, 너비아니 등 다양한 제품과 함께 온라인 오픈마켓 및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매장 등에 입점,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한 선진 계열화시스템의 일환으로 부화에서 생산까지 첨단 시스템을 도입, 국내 최고의 오리육을 생산,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유통단계를 최소·최적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및 제품개발로 오리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주)모란식품 대표이자 현 한국오리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만섭 대표는 “오리 계열화사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며 “현재 오리 산업은 외식산업에 약 80%가 치중돼 있어 가정내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소비 형태에서 탈피해 가정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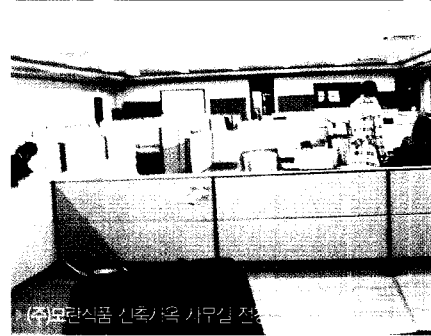
(주)모란식품 신공장 준공에 각계 인사들 대거 참여



(주)모란식품 신공장 준공 기념식 모습



참여인 등에게 건축 마감공사 및 설비 점검하고 있다.



(주)모란식품 신공장 준공 기념식 모습

다양한 형태의 2차 가공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오리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주)모란식품의 신사옥 준공식에는 이승훈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외 농식품부 인사,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외 축산단체장, 이경호 음성축협장 외 지역축협조합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기념식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김만섭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올해 발생한 AI와 경기 침체 속에 사료가격 상승과 소비 부진으로 가금업계 전부가 힘든 상황이지만 오리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새 가공공장을 지었다”며 “더욱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신사옥은 지난해 7월 총면적 3만4천평방미터의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공사기간 18개월에 걸쳐 도축설비를 개선하고 HACCP기준을 적용한 8천5백평방미터 규모의 2·3차 가공장과 부화장 1,500평방미터(월 50만수 생산), 작업장 1,400평방미터, 냉동 300톤 및 냉장 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춘 창고와 12,000톤의 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폐수처리장 등 총공사금액 14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개별동수 10개동 연건평 13,000여 평방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공사를 무재해로 성공리에 준공하였다. (주)모란식품의 영업기획을 맡고 있는 이용웅 과장은 “규모 뿐 아니라 최고품질의 오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특히 시간당 5,0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에 에어칠링 라인을 증설하여 더욱 쫄깃한 육질의 오리육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새롭게 부화장을 신축하면서 오리의 논스톱 수직계열화 생산이 가능케 돼 원가절감효과 및 외부의 유해요소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날 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가공장은 셀덕오리 소세지, 오리 훈제 등 육가공 제품을 일일 5톤씩 생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직원규모도 150명 가량으로 확대,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2008년 12월 1일, (주)모란식품의 숙원사업인 논스톱 수직계열화 사업 실현
- 총면적 3만4천평방미터, 공사기간 18개월, 149억원의 예산 소요
- 도축설비 개선공사, 8천5백평방미터의 2·3차 가공장과 1천5백평방미터의 부화장 신축
- 3백톤 규모의 냉동물량과 1백톤 규모의 냉장물량 수용가능한 창고 시설 신축
- 1만 2천톤 규모의 폐수처리장 시설까지 새롭게 준공
- 150명의 고용확대 효과
- 학교급식, 군납, 대형할인마트 입점 등 더욱 다양한 판로 개척 기대 모아...